

## 공연·오페라 80여편 연중 예술극장 무대 오른다

세계 유명 작가들 대거 참여 내년부터 제창  
전시·공연 편중...7대 문화지구와 연계 부족

### 포문화전당 콘텐츠 종합계획안...12월 최종안 확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 개관하는 오는 2015년 7월부터 세계 유명 제작자들이 참여하는 공연물과 페스티벌 등 80여편의 작품이 문화전당의 아시아예술극장 무대에서 선보이거나 제작된다. <관련기사 3면>

하지만, 콘텐츠가 전시·공연 장르로 치중된데다 전당 주변(7대 문화지구)과의 연계도 부실해 전당의 설립 취지인 문화발전소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6일 광주시 동구 아시아문화마루에서 열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를 위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문화전당 콘텐츠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초 발표한 콘텐츠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강한 것으로 문화전당을 구성하는 5개원(아시아예술극장·문화창구)과의 연계도 부실해 전당의 설립 취지인 문화발전소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를 거쳐 오는 12월 문화전당 콘텐츠 최종안을 확정·발표하고, 내년부터 공연·전시물 제작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콘텐츠 제작에는 문화전당이 광주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광주·전남지역 작가의 참여비율이 최소 5% 이상 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아시아 예술극장에서는 2015년 개관 페스티벌(7~8월)을 개최하고 이듬해부터는 봄(3~6월), 가을(9~12월) 시즌제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시아 동시대 예술작품 80여편을 연중 선보인다.

세계 주요 작가들이 아시아예술극장 공연물 창작에 대거 참여하는 것도 눈에 띈다. 2011년 세계의 영향력 있는 미술작가 1위에 선정된 아이웨이웨이(Ai weiwei·중국)와 작품 제작을 추진 중이며, 윌리엄 켄트리지(William Kentridge·남아공), 진은숙(한국) 등과 새로운 오페라를 만들 예정이다. '100% 베를린'으로 유명한 리미니 프로토콜(Rimini Protokoll·독일)과는 광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여주는 '100% 광주'(가칭) 공연 등도 제작될 예정이다.

문화창조원에서는 아시아의 문화

의 다양성과 가치를 반영하는 7개 전시가 열린다. 창조원의 상설전시 '아시아 도시 파빌리온(가칭)'은 13개의 전시 공간을 여행하듯 이동하며 아시아의 도시·언어·미디어·종교·인종 등 문화를 체험하는 콘텐츠로 구성된다. 백남준 선생의 첫 개인전(음악의 전시·전자텔레비전)과 같이 1950년 이후의 아시아 관련 전시의 리바이벌전도 개최한다. 문화창조원은 또 창작 및 제작센터를 바탕으로 공연과 전시를 직접 기획·제작하고, 그 노하우를 국내외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초청 전시로 반

고흐와 마네 전 등도 추진한다.

아시아문화원은 문화콘텐츠 창작의 원천소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연극·영화·예술, 의례·공연·예술, 의식주, 이주·정착 등 5대 영역을 중심으로 동시대 아시아문화를 연구하고 공연·전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어린이문화원은 '신기한 아시아(자연과 생활)', '지혜로운 아시아(숫자와 문명)', '멋있는 아시아(음악과 예술)'를 주제로 한 체험형 전시가 열린다. 어린이 문화원은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 문화예술콘텐츠 창작·유통·

교류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옛 도청분관 등 5월 유적으로 구성된 민주평화교류원에서는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아시아와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표적 전시 프로그램은 '열흘간의 나비페'로, 5·18민주화운동 10일 동안의 이야기를 기승전결의 서사구조에 맞춰 선보인다. 민주평화교류원은 아시아 각국 정부, 문화예술기관 등과 문화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아시아문화장관회의', '아시아 전통오케스트라' 등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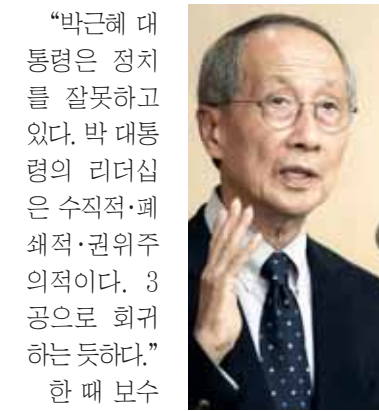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무등산 중봉의 은빛 가을 구름 한점 없는 화창한 가을 날씨를 보인 16일 무등산을 찾은 등산객들이 중봉능선에 핀 '은빛' 억새길을 걷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강연-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 “朴대통령 리더십 폐쇄·권위적 경제민주화 이뤄야 사회통합”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리더십은 수직적·폐쇄적·권위주의적이다. 3공으로 회귀하는 듯하다.”

한 때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책사'로 통했던 윤여준(74·정치소비자협동조합 울림 이사장) 전 환경부 장관은 15일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강연 '한국정치의 현실과 미래'에서 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선출된 군주정'이라고 혹평했다. <관련기사 2면>

윤 전 장관은 그 예로 정부조직법 개편 과정을 들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법안을 국회에 보내면서 한글자도 고치지 말라고 한 것은 입법권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였다는 것이다.

윤 전 장관은 “공공성이라는 가치가 뭉쳐진 게 국가이고, 대통령은 공공성의 상징”이라며 “대통령과 공직자는 투철한 공인 의식과 민주적 태도를 가

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전 장관은 “경제민주화는 개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정치민주화의 토대가 된다”며 “경쟁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시작인데 이를 지키지 않아 오늘날 한국 사회가 시끄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는 한국정치의 미래를 결정하는 척도였지만 망월동으로 상징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광주 시민이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묘지·도로에 친환경 거짓 인증

장성 부군수·브로커 등 11명 구속 26명 입건

현장 실사 없이 서류만을 근거로 결정되는 농산물 친환경인증 제도의 허점을 노린 브로커들이 전남지역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거짓 인증은 장성과 나주, 고흥 등 전남지역 지자체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친환경 인증 면적이 가장 넓은 전남도의 무리한 확대정책도 한 몫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 단속반(반장 김한수)은 16일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 사업과 관련한 비리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업무상 배임)로 박모(59) 장성군 부군수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26명을 입건했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묘지나 도로, 저수지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해주는 등 기본적인 법규나 절차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인증기관은 농약 검출이 예상되는 수질 시료를 수돗물로 바꿔치기하고 농약 검사기관으로부터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처럼 서류까지 변조했다.

박 부군수는 전남도가 친환경 농업을 역점시책으로 내세워 친환경 인증 면적을 늘릴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허위적 공무원들을 동원해 거짓 인증을 직접 주도했다가 구속기소됐다.

장성은 지난해 하반기 전체 인증면적의 86%에 해당하는 8,091km를 인증

해 전남도로부터 친환경 농업우수상(포상금 1억5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장성군은 인증기관에 3억원의 인증 수수료를 지급했다.

친환경 농산물 거짓 인증은 브로커들이 주도했다. 검찰수사에서 7개 인증기관과 10명의 브로커가 5700여 농가를 끌어들여 63.8km에 대해 인증을 남발해 30억원을 착복했다.

이들 브로커들은 농가를 찾아가 “농자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며 거짓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소개해주고 인증보증금(한 농가당 15만~30만원)의 30%를 소개비로 챙겼다. 일부 브로커는 친환경 농자제업체를 운영하면서 농가에 농자제를 무상으로 공급해주고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3

억~6억원을 착복하기도 했다.

브로커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것은 인증기관의 난립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007년 37개에 불과하던 인증기관은 7년 사이 76개로 증가했으며, 인증 건수도 지난 2010년 1만 3966건에서 지난해 1만6149건으로 매년 급증 추세다.

검찰 관계자는 “친환경 인증 비리는 장성만이 아니라 나주, 고흥 등 전남지역 각 지자체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했으며, 장성은 공무원이 직접 거짓 인증을 주도한 사례”라며 “일단 수사는 일단락됐으나 추가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수사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오영목기자 chadod@

**광주사범·사대  
광주교육대학교**

**제39회 총동문체육대회**

- 일시 : 2013. 10. 26(토) 09:00
- 장소 : 모교 운동장(풍향대)
- 전화 : 062-520-4555

광주사범·사대·교육대학교  
총동문회장 손정선

**광주·전남혁신도시 새로운 투자·주거 랜드마크!**

# 혁신도시 최고의 수익형 오피스텔!

· 1차 : 이전 기관 공급예정(1,227실) : 이전 기관 공급 후 잔여세대 일반 공급예정  
· 2차 : 금회 일반 공급예정(1,256실)

중양호수공원 수변공원

**10월18일  
오픈  
일반공급**

광주·전남혁신도시 중흥S-클래스  
**메가티움 2차 오피스텔**  
“금회 일반분양”

광주·전남혁신도시 중흥S-클래스  
**메가티움 1차 오피스텔**  
“금회 분양상가”

**상가 동시분양(1차분)**  
(10월 29일 공개입찰 예정)

**광주·전남혁신도시  
중흥S-클래스 메가티움**

- 혁신도시 비전의 중심**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15개의 공공기관과 인접한 중심상업지구의 최중심
- 혁신도시 가치의 중심**  
명품브랜드 중흥건설의 고품격 설계와 디자인으로 완성되는 총 2,483실(예정)의 초특급 랜드마크 프리미엄 오피스텔
- 혁신도시 교통의 중심**  
혁신도시 메인도로, 광주~나주간 1번국도, 호남고속도로 광주공항, 무안국제공항, KTX 나주/송정역 등 쾌속교통망
- 혁신도시 생활의 중심**  
중심상업지구, 중양호수공원, 나주호 관광지, 중흥골프&리조트 골드레이크CC, 골프빌리지, 지식강원지 등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

명품 오피스텔  
**[일반공급]**  
· 1차·2차 총 2,483실  
· 금회 일반공급 : 1,256실

분양문의  
**062) 364-0001**

모태영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393-55번지